

사회보장제도와 직업능력개발 연계 실태 분석

The Analysis of Linkage for Social Welfare System and Skill Development in Korea

이삼직(Lee, Sang Jik)* · 김철희(Kim, Cheol Hee)**

ABSTRACT

The Job training status analysis in social insurance subscribers found that the participation proportion of all the subscriber and non-subscriber of national pension, health insurance, unemployment insurance, accident insurance and social insurance continues to increase, depending on the job training over time. This implies that training participation opportunities are being expanded. In particular, their greatly increased participation in vocational training of the Non-subscriber mean that the role of vocational training greatly expand as dimension in the social safety net for vulnerable groups.

The class of no experience in vocational training in the midst of non-subscriber of social insurance is comprised of female by gender, age 60 or more include people with a high school diploma, and the unemployed. Thus social insurance benefits and job training opportunities to participate can be required. In addition, social insurance and vocational training with the association can be found. Because of a high percentage of the cases that the training experienced group of social insurance subscribers utilized employer or employer group training institutions.

The training non-experienced group in vocational training of non-subscribers of social insurance in poor, non-regular workers portions are very high. The class of no experience in vocational training in the non-subscriber of social insurance is high at repair, craftsman type of occupation. We found that necessary to supply of vocational training for the weak class in society.

Key Words : 사회보장제도(Social welfare system), 빈곤층(The poor(class)) 직업능력개발(직업훈련)(Skill development(Vocational training))

*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교수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교신저자)

1. 분석 필요성

사회보장제도는 불의의 생활상 위험이나 소득중단 등에 대비해 일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수단을 국가가 책임을 지는 제도이다. 즉 실업, 노령, 질병, 사망 등으로 인한 개인과 그 가족의 소득 상실로부터 개인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 프로그램과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공공서비스 및 경제적 원조 등의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은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상태의 결과로 발생하는 소득의 상실을 대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인 소득 확보를 위한 제반 시스템이 어떻게,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다. 물론, 은퇴 등 노동시장 퇴장 이후 소득보장도 포함되나 이 또한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동안 축적된 경험과 숙련 등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두 가지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사회보장제도 수급 실태를 살펴보고, 수급 및 비수급 원인과 그 결정요인을 분석해 봄으로써 각 제도별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한다. 특히, 한국노동패널조사는 직업훈련에 관한 다양한 조사항목(변수)이 있어 각 사회보장제도의 다양한 영향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2. 선행연구 분석 및 개념 정의

사회보험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기존 사회보장제도 관련 연구는 수혜 대상, 범위, 정책 내용, 소득보장 관련 효과 분석 등에 중점을 두고 있었던 반면, 이들 사회보장제도의 인재정책 및 직업능력개발 관련 정책, 제도와외 관계에 대한 접근은 소홀한 실정이다. 주요 연구 영역은 공적부조와 노동공급, 복지프로그램과 근로유인, 관련 제도 및 정책 효과 평가, 제도 비교 및 개선 방안 등이 있다.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 사업은 각 사업별 성과를 제도의 효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그 간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성과 평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유경준 외(2007)는 재정사업 심층평가에서 각 훈련과정별(전직, 신규, 우선선정직종훈련 등) 사업내용, 체계 분석, 주요쟁점, 효과성 평가(집단 간 비교 분석) 등을 통해 훈련비 지급 방식 개선, 훈련성과 측정을 위한 관련 DB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이병희(2000)는 훈련을 받지 않은 통제집단과 비교할 때 훈련참여는 실직자의 재취업확률을 유의하게 높이나 훈련내용 자체가 재취업확률을 높이지는 않는다고 보고하고 있다.

복지프로그램의 근로유인효과 연구에서는 대부분 노동공급을 감소시킨다는 결과와 그렇지 않다는 결과로 대립되고 있다. 연금제도와 노동공급은 은퇴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은퇴를 촉진시킨다는 연구결과와 그렇지 않다는 연구결과가 상존하고 있다.

가장 최근의 연구로 박찬용 외(2008)는 각종 사회복지제도의 근로유인 체계 분석(국

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노령연금 등 사회복지제도 포함),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사회보험, 사회복지제도의 근로유인 제고 방안 등을 도출하였다. 공적연금제도(소득과 연금의 병행, 한국식 부분연금 도입), 산재보험(현장요양·재활서비스 지원체계의 내실화, 실효성 있는 직업재활체계의 구축, 급여 조정방안), 고용보험(고용안정 인프라 구축, 고용안정사업 재설계, 취약계층 집중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보충급여와 통합급여체계 등) 개선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김혜원 외(2007)는 선진국 사회안전망 개혁 분석, 사회안전망과 조세부담, 노동공급효과 분석을 통해 선진국의 사회안전망 개혁의 정치경제학, 조세부담과 사회안전망, 사회안전망과 노동공급효과(고용보험 대상)를 제시하였다.

이상은(2004)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저소득층들의 노동공급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실증분석을 한 결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취업과 근로시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인회(2005)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근로활동과 자활사업 참여 문제점 분석과 개선방안을 평가한 결과, EITC 도입과 의료급여 등 현물급여를 개별급여로 분리했을 경우 수급자의 근로증대, 탈수급촉진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제시했으며, 강병구(2004)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노동시간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본 논문 주제와 유사한 성격의 연구로 수행된 박찬용 외(2000)는 사회안전망 확충의 이론적 기초와 우리나라 소득보장 프로그램의 적용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사회보험 적용 확대 방안, 소득보장 급여 수준 제시, 소득보장 사각지대(규모와 집단) 도출, 소득보장제도 개편 방안(기본원칙, 해소방안, 정책대안 등)을 제시하였다.

사회보장제도에는 사회보험제도와 공적부조사업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가 있다. 사회보험에는 산업재해보험, 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등 4대보험이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정부 재정에서 지원되는 공적부조, 그리고 국민이 안정적인 생활과 직업, 교육, 의료 등에 대해서 보장받을 수 있게 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등이 있다. 또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차이점을 보면, 사회보험은 예방적인 측면에서 보험형식을 빌려 소득의 일부를 적립하여 수급요건에 부합할 때 수급 받는 반면, 공공부조는 최저생계에 미달할 경우 일정수준의 인간다운 생활을 원조하는 것이다.

직업훈련은 직업에 관한 훈련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술적 육체적인 직업의 일정한 목표와 기준에 도달되는 능력습득을 위한 반복적인 행위”라고 말할 수 있다(서상선, 2002). 다만 여기서 말하는 직업의 종류는 훈련으로 능력습득이 가능한 분야에 한정된다고 할 수 있다. ILCO에서 채택한 직업훈련에 관한 권고(제57호)에서는 “기술적 또는 직업적 지식을 습득시키거나 향상시킬 수 있는 모든 훈련방법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훈련이 학교에서 행하든 작업장에서 행하든 상관없다”고 정의하고 있다(정택수, 2008). 직업능력개발은 직업훈련을 포함하는 보다 광의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직업훈련으로 제한하여 분석한다.

3. 분석 자료 및 방법

한국노동패널조사(Korean Labor & Income Panel Study)는 비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한국의 가구와 가구원을 대표하는 패널표본구성원(5,000 가구에 거주하는 가구원)을 대상으로 1년 1회 경제활동 및 노동시장이동, 소득활동 및 소비, 교육 및 직업훈련, 사회생활 등에 관하여 추적 조사하는 종단면 조사(longitudinal survey)이다. 1998년부터 도시지역 5,000개의 표본가구를 선정하여 가구 및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2008년까지 총 11차례 조사가 이루어졌다(2009년에는 전국 대표성 확보를 위하여 1,500가구의 신규표본을 추가하였다). 2007년 제10차 조사 결과, 조사 성공 가구 수는 4,953가구이며, 가구원 수는 11,855명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노동시장관련 전국규모 조사로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노동부의 「노동력유동실태조사」 및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등이 있다. 그러나 이상의 통계조사들은 모두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한 횡단면적(cross-sectional) 조사로서 노동시장의 정지된 그림(snapshot view)을 보여줄 수는 있으나 동적인 측면에서 개인의 경제활동참여 및 노동시장 이동과정, 소득과 소비의 변화 등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패널조사는 횡단면 조사의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면서 동적인 차원에서 가구와 개인의 장기간에 걸친 변화와 상태 간 이동과정을 보여줌으로써 횡단면 자료만 가지고는 불가능한 심도 있는 정책연구 및 정책평가를 가능하게 해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는 크게 가구용(주거, 사교육, 소득, 소비, 저축, 자산, 부채 등) 조사와 개인용(임금 및 비임금 근로자의 진행 중인 일자리와 그만둔 일자리, 취업 및 미취업자의 경제활동, 근로시간, 소득, 사회보험 수급, 구직활동, 직무 만족도, 직업훈련, 출산, 장애, 건강, 차별, 생활 만족도 등) 조사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개인용 자료의 사회보험 수급 여부와 직업훈련 참여 여부(종속변수)를 기준으로 가구 및 개인의 각종 변수별 빈도 및 영향정도를 분석하였다.

사회보험 수급 변수는 사회보험 가입여부, 현재 수급 상태, 사회보험 종류(총 18개 연금 및 급여)가 있으며, 직업훈련 변수는 훈련 참여 상태, 개수, 시기, 기간, 분야, 방법, 지원 유형, 기관, 목적, 비용부담, 수당, 임금, 부족한 점, 향후 희망 훈련 시기 및 내용, 목적, 훈련 받을 의사가 없다면 이유 등이 있다.

직업훈련 참여를 결정하는 요인은 로짓분석(Logit)을 통하여 분석한다.

$$L_i = \ln\left[\frac{P_i}{1-P_i}\right] = \alpha_i + \beta_i Z_i + \epsilon_i$$

즉, 위와 같이 쓸 수 있는데 여기서 P_i 는 직업훈련에 참여할 확률이며, Z_i 는 성, 연령, 학력 등 인적속성 및 사회경제적 속성 등이다.

4. 분석 결과

1) 사회보험 수급자의 직업훈련 참여 현황

한국노동패널 자료에 기초하여 사회보험 수급 및 미수급자들의 직업훈련 참여 현황을 보면, 국민연금이 경우 2차 년도에 가입자의 5.0%가 직업훈련에 참여한 반면 미가입자는 1.9% 만이 직업훈련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직업훈련 참여 비율 자체도 낮지만 특히, 미가입자의 훈련참여 비율은 가입자의 훈련참여 비율보다도 매우 낮게 나타나 미가입자일수록 직업훈련 참여 기회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사가 진행될수록 가입자의 훈련참여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0차 년도에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훈련참여 비율이 19.0%, 미가입자의 훈련참여 비율이 4.0%로 증가하여 제한적이거나 직업훈련 참여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건강보험도 마찬가지로 2차 년도에 가입자 5.0%, 미가입자 1.8%였던 훈련참여 비율이 10차 년도에는 각각 21.0%, 3.1%로 증가하였으며, 고용보험은 4.7%, 2.0%에서 19.2%, 4.1%로, 산재보험은 4차 년도에 13.9%, 3.8%에서 19.9%, 3.9%로 증가하였다.

<표 1> 사회보험 수급자의 직업훈련 참여 현황(국민연금, 건강보험)

(단위: 명, %)

구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합계
	가입	%	미가입	%	가입	%	미가입	%	
2차년도									
참 여	99	(5.0)	190	(1.9)	105	(5.0)	184	(1.8)	289
미참여	1,894	(95.0)	9,855	(98.1)	1,980	(95.0)	9,769	(98.2)	11,749
총 합	1,993		10,045		2,085		9,953		12,038
4차년도									
참 여	265	(14.1)	325	(3.5)	316	(14.8)	274	(3.1)	590
미참여	1,615	(85.9)	8,846	(96.5)	1,815	(85.2)	8,646	(96.9)	10,461
총 합	1,880		9,171		2,131		8,920		11,051
5차년도									
참 여	228	(11.7)	282	(3.1)	278	(12.3)	232	(2.7)	510
미참여	1,722	(88.3)	8,734	(96.9)	1,989	(87.7)	8,467	(97.3)	10,456
총 합	1,950		9,016		2,267		8,699		10,966
6차년도									
참 여	285	(13.1)	293	(3.1)	346	(13.7)	232	(2.6)	578
미참여	1,897	(86.9)	9,066	(96.9)	2,172	(86.3)	8,791	(97.4)	10,963
총 합	2,182		9,359		2,518		9,023		11,541
7차년도									
참 여	346	(16.1)	299	(3.1)	418	(16.4)	227	(2.5)	645
미참여	1,806	(83.9)	9,210	(96.9)	2,135	(83.6)	8,881	(97.5)	11,016
총 합	2,152		9,509		2,553		9,108		11,661

구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합계
	가입	%	미가입	%	가입	%	미가입	%	
참 여	383	(17.7)	376	(4.0)	487	(18.7)	272	(3.0)	759
8차년도 미참여	1,777	(82.3)	9,044	(96.0)	2,113	(81.3)	8,708	(97.0)	10,821
총 합	2,160		9,420		2,600		8,980		11,580
참 여	383	(17.7)	376	(4.0)	487	(18.7)	272	(3.0)	759
9차년도 미참여	1,777	(82.3)	9,044	(96.0)	2,113	(81.3)	8,708	(97.0)	10,821
총 합	2,160		9,420		2,600		8,980		11,580
참 여	483	(19.0)	413	(4.4)	621	(21.0)	275	(3.1)	896
10차년도 미참여	2,054	(81.0)	8,905	(95.6)	2,337	(79.0)	8,622	(96.9)	10,959
총 합	2,537		9,318		2,958		8,897		11,855

주: 1) 1차 년도에는 사회보험 관련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2) 3차 년도에는 직업훈련참여 여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자료: 한국노동연구원(각 연도), 한국노동패널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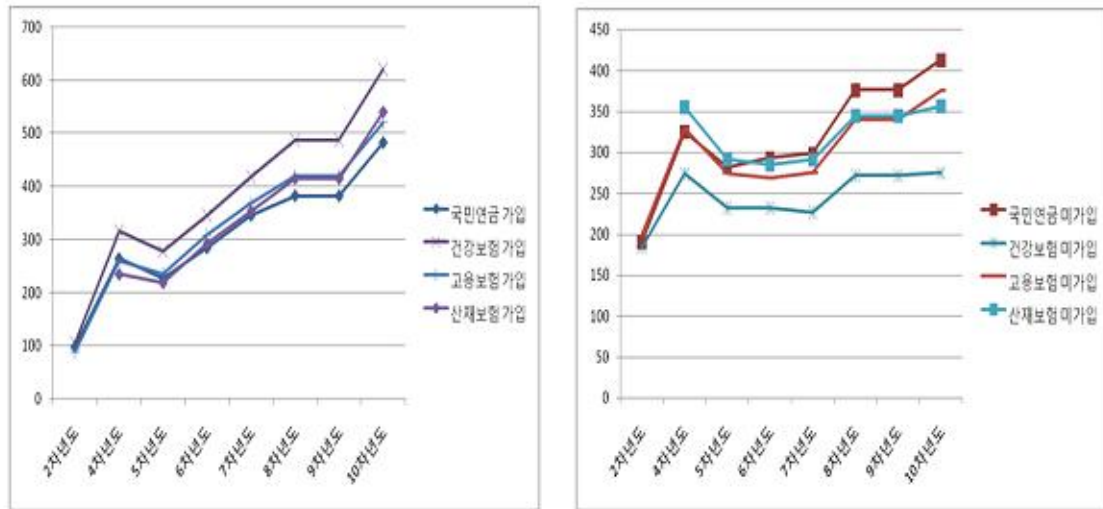
<표 2> 연도별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여부에 따른 직업훈련 참여 여부

(단위: 명, %)

구분	고용보험				산재보험				합계
	가입	%	미가입	%	가입	%	미가입	%	
참 여	89	(4.7)	200	(2.0)					289
2차년도 미참여	1,810	(95.3)	9,939	(98.0)					11,749
총 합	1,899	(100.0)	10,139	(100.0)					12,038
참 여	260	(14.0)	330	(3.6)	235	(13.9)	355	(3.8)	590
4차년도 미참여	1,601	(86.0)	8,860	(96.4)	1,458	(86.1)	9,003	(96.2)	10,461
총 합	1,861	(100.0)	9,190	(100.0)	1,693	(100.0)	9,358	(100.0)	11,051
참 여	236	(12.4)	274	(3.0)	219	(12.6)	291	(3.2)	510
5차년도 미참여	1,670	(87.6)	8,786	(97.0)	1,514	(87.4)	8,942	(96.8)	10,456
총 합	1,906	(100.0)	9,060	(100.0)	1,733	(100.0)	9,233	(100.0)	10,966
참 여	309	(13.8)	269	(2.9)	293	(13.8)	285	(3.0)	578
6차년도 미참여	1,923	(86.2)	9,040	(97.1)	1,837	(86.2)	9,126	(97.0)	10,963
총 합	2,232	(100.0)	9,309	(100.0)	2,130	(100.0)	9,411	(100.0)	11,541
참 여	369	(15.3)	276	(3.0)	354	(15.3)	291	(3.1)	645
7차년도 미참여	2,038	(84.7)	8,978	(97.0)	1,957	(84.7)	9,059	(96.9)	11,016
총 합	2,407	(100.0)	9,254	(100.0)	2,311	(100.0)	9,350	(100.0)	11,661
참 여	419	(17.7)	340	(3.7)	415	(18.0)	344	(3.7)	759
8차년도 미참여	1,952	(82.3)	8,869	(96.3)	1,886	(82.0)	8,935	(96.3)	10,821
총 합	2,371	(100.0)	9,209	(100.0)	2,301	(100.0)	9,279	(100.0)	11,580
참 여	419	(17.7)	340	(3.7)	415	(18.0)	344	(3.7)	759
9차년도 미참여	1,952	(82.3)	8,869	(96.3)	1,886	(82.0)	8,935	(96.3)	10,821
총 합	2,371	(100.0)	9,209	(100.0)	2,301	(100.0)	9,279	(100.0)	11,580
참 여	520	(19.2)	376	(4.1)	540	(19.9)	356	(3.9)	896
10차년도 미참여	2,187	(80.8)	8,772	(95.9)	2,170	(80.1)	8,789	(96.1)	10,959
총 합	2,707	(100.0)	9,148	(100.0)	2,710	(100.0)	9,145	(100.0)	11,855

주: 2차 년도에는 산재보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자료: 한국노동연구원(각 연도), 한국노동패널 원자료



[그림 1] 연도별 직업훈련 참여자의 사회보험 수급자 및 미수급자 추이

2) 사회보험 가입 및 직업훈련 참여 여부별 특성

사회보험 가입 및 직업훈련 참여 여부에 따른 인적속성, 산업 및 직업, 직업훈련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았다¹⁾. 먼저 사회보험 가입자 중 직업훈련 참여 경험이 있는 집단은 성별로는 남성, 연령별로는 30대, 학력은 대졸 이상이 많았고, 취업자의 경우 근로시간 형태는 전일제, 정규직, 월급여제 등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입자 중 직업훈련 참여 경험이 없거나 현재 참여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학력에서 고졸 비중이 크게 높은 점을 제외하고는 성별, 연령별, 근로시간, 정규직 여부 등 여타 변수에서 참여자 그룹과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다.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직업훈련 경험이 있는 비중이 3.4%에 불과하였으나 그 외에는 사회보험 가입자의 특성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미가입자 중 직업훈련 참여 경험이 없는 계층은 성별로 여성, 연령별로 60대 이상, 학력별로 고졸, 미취업자 비중이 높게 나타나 이들이 사회보험 수혜와 직업훈련 참여 기회로부터 배제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계층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으며, 이들 취약계층에게 직업훈련이 제공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찾을 수 있다.

1) 한국노동패널 자료의 10차에 걸친 조사기간 중 사회보험을 한 가지 유형 이상, 한 번 이상 수혜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모집단 분석하였음(패널조사의 특성 고려)

<표 3> 사회보험 가입여부에 따른 직업훈련 참여 여부(인적 속성별)

(단위: 명, %)

구분		사회보험 가입자				사회보험 미가입자			
		직업훈련 경험있음		직업훈련 경험없음		직업훈련 경험있음		직업훈련 경험없음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계		898	(15.9)	4,753	(84.1)	471	(3.4)	13,346	(96.6)
성별	남자	582	(16.5)	2,949	(83.5)	254	(4.0)	6,083	(96.0)
	여자	316	(14.9)	1,804	(85.1)	217	(2.9)	7,263	(97.1)
연령	20대미만	0		0		2	(0.3)	613	(99.7)
	20대	113	(15.7)	607	(84.3)	89	(3.6)	2,409	(96.4)
	30대	360	(16.8)	1,781	(83.2)	144	(5.2)	2,599	(94.8)
	40대	251	(18.0)	1,143	(82.0)	117	(4.9)	2,260	(95.1)
	50대	134	(15.2)	748	(84.8)	76	(3.6)	2,055	(96.4)
	60대이상	40	(7.8)	474	(92.2)	43	(1.2)	3,410	(98.8)
학력	고졸이하	61	(7.5)	751	(92.5)	58	(1.1)	5,124	(98.9)
	고졸	284	(12.8)	1,934	(87.2)	222	(3.8)	5,548	(96.2)
	초대졸	159	(17.7)	741	(82.3)	62	(6.1)	960	(93.9)
	대졸이상	394	(22.9)	1,327	(77.1)	129	(7.0)	1,714	(93.0)
거주지역	광역시	443	(14.8)	2,545	(85.2)	229	(3.1)	7,153	(96.9)
	기타	455	(17.1)	2,208	(82.9)	242	(3.8)	6,193	(96.2)
혼인상태	미혼	233	(13.5)	1,498	(86.5)	160	(3.6)	4,281	(96.4)
	기혼	638	(17.5)	3,001	(82.5)	284	(3.7)	7,332	(96.3)
	기타	27	(9.6)	254	(90.4)	27	(1.5)	1,733	(98.5)
취업여부	취업자	898	(15.9)	4,753	(84.1)	316	(6.1)	4,840	(93.9)
	미취업자	0		0		155	(1.8)	8,506	(98.2)
구직활동기간 유무	없음	113	(12.1)	820	(87.9)	66	(6.1)	1,011	(93.9)
	있음	79	(12.4)	557	(87.6)	30	(6.8)	412	(93.2)
근로시간형태	시간제	16	(10.6)	135	(89.4)	18	(4.7)	363	(95.3)
	전일제	880	(16.0)	4,604	(84.0)	117	(5.5)	2,020	(94.5)
정규직 여부	정규직	788	(16.9)	3,875	(83.1)	72	(6.8)	992	(93.2)
	비정규직	106	(11.4)	825	(88.6)	63	(4.4)	1,353	(95.6)
임금결정방식	연봉제	151	(23.5)	492	(76.5)	2	(8.0)	23	(92.0)
	월급	715	(15.1)	4,006	(84.9)	102	(6.0)	1,594	(94.0)
	기타	32	(11.1)	255	(88.9)	31	(3.9)	774	(96.1)
자격증 보유여부	있음	82	(42.7)	110	(57.3)	47	(16.7)	234	(83.3)
	없음	816	(14.9)	4,643	(85.1)	424	(3.1)	13,112	(96.9)

산업 및 직업별 분포를 보면, 사회보험 가입자 중 직업훈련 참여 경험이 있는 그룹

은 제조업이 가장 높고, 교육서비스업, 수리업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직업훈련 미참여 비중이 높은 업종 또한 제조업, 사업서비스, 교육서비스 등의 순으로 나타나 유사한 측면을 보여준다. 다만,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직업훈련 참여자는 수리업, 금융보험업 비중이 높고, 직업훈련 미경험자는 수리업, 제조업, 숙박음식업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 보면 사회보험 가입자 중 직업훈련을 경험한 비중은 서비스 종사자, 사무종사자 순으로 높으며, 직업훈련 미경험자 그룹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반면 사회보험 미가입자 중 직업훈련 참여 경험자는 농어업, 사무종사자 순으로, 직업훈련 미경험자 그룹은 농어업, 조립종사자 등의 순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직업훈련 유형 및 기관에서는 사회보험가입자 중 직업훈련을 경험한 그룹 모두 재직자훈련과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의 훈련기관을 활용한 사례가 가장 높아 사회보험과 직업훈련과의 연관 관계를 볼 수 있다. 즉, 4대 사회보험은 대부분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여 납부하고 있으며, 이 경우 직업훈련이 대부분 사업주 주도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4> 사회보험 가입여부에 따른 직업훈련 참여 여부(산업별, 직업별)

(단위: 명, %)

구분	사회보험 가입자				사회보험 미가입자				
	직업훈련 경험있음		직업훈련 경험없음		직업훈련 경험있음		직업훈련 경험없음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계	898	(15.9)	4,753	(84.1)	471	(3.4)	13,346	(96.6)	
업종	농림어업	3	(16.7)	15	(83.3)	31	(6.5)	448	(93.5)
	광업	0	(0.0)	6	(100.0)	0	(0.0)	9	(100.0)
	제조업	218	(13.6)	1,388	(86.4)	15	(2.2)	663	(97.8)
	전기수도	15	(32.6)	31	(67.4)	2	(50.0)	2	(50.0)
	건설업	42	(9.8)	388	(90.2)	4	(0.7)	535	(99.3)
	수리업	90	(13.6)	572	(86.4)	58	(5.5)	1,005	(94.5)
	숙박음식	11	(7.9)	128	(92.1)	22	(3.7)	569	(96.3)
	운수업	50	(16.3)	256	(83.7)	32	(13.8)	200	(86.2)
	통신업	25	(22.1)	88	(77.9)	2	(5.4)	35	(94.6)
	금융보험	81	(27.9)	209	(72.1)	38	(27.0)	103	(73.0)
	부동산임대	6	(10.3)	52	(89.7)	6	(4.7)	121	(95.3)
	사업서비스	85	(13.2)	559	(86.8)	11	(4.6)	228	(95.4)
	공공행정	78	(29.1)	190	(70.9)	11	(16.9)	54	(83.1)
	교육서비스	104	(21.1)	389	(78.9)	31	(10.0)	279	(90.0)
	사회복지	63	(20.7)	242	(79.3)	10	(13.0)	67	(87.0)
	오락공연	7	(9.7)	65	(90.3)	12	(8.0)	138	(92.0)
	개인서비스	20	(10.4)	173	(89.6)	31	(7.6)	378	(92.4)

구분	사회보험 가입자				사회보험 미가입자			
	직업훈련 경험있음		직업훈련 경험없음		직업훈련 경험있음		직업훈련 경험없음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고위임직원								
전 문 가	18	(17.6)	84	(82.4)	6	(5.7)	100	(94.3)
기 술 공	161	(20.2)	635	(79.8)	34	(11.6)	259	(88.4)
사무종사자	182	(19.8)	736	(80.2)	54	(9.2)	530	(90.8)
서 비스종사자	204	(17.0)	998	(83.0)	33	(9.3)	322	(90.7)
판매종사자	48	(17.5)	226	(82.5)	36	(5.0)	684	(95.0)
농어업종사자	57	(18.6)	250	(81.4)	65	(7.8)	772	(92.2)
기능종사자	3	(25.0)	9	(75.0)	31	(6.6)	440	(93.4)
조립종사자	94	(12.6)	651	(87.4)	12	(1.6)	741	(98.4)
단순노무자	87	(11.8)	648	(88.2)	36	(8.0)	415	(92.0)
군 인	40	(7.5)	495	(92.5)	9	(1.6)	569	(98.4)
무 직	3	(17.6)	14	(82.4)	0	(0.0)	2	(100.0)

<표 5> 사회보험 가입여부에 따른 직업훈련 참여 여부(직업훈련별)

(단위: 명, %)

구분	사회보험 가입자				사회보험 미가입자			
	직업훈련 경험있음		직업훈련 경험없음		직업훈련 경험있음		직업훈련 경험없음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계	898	(15.9)	4,753	(84.1)	471	(3.4)	13,346	(96.6)
정부 지원 훈련	기능사 양성훈련 또는 정부위탁훈련	15 (100.0)	0 (0.0)		23 (100.0)		0 (0.0)	
	실업자 재취직 훈련	5 (100.0)	0 (0.0)		32 (100.0)		0 (0.0)	
	고용촉진훈련	5 (100.0)	0 (0.0)		12 (100.0)		0 (0.0)	
	재직자 훈련	112 (100.0)	0 (0.0)		52 (100.0)		0 (0.0)	
	취업훈련 (신규학교졸업자)	2 (100.0)	0 (0.0)		9 (100.0)		0 (0.0)	
	근로자수강지원금	2 (100.0)	0 (0.0)		1 (100.0)		0 (0.0)	
	기타 실업자훈련	0	0		1 (100.0)		0 (0.0)	
	잘 모르겠음	3 (100.0)	0 (0.0)		10 (100.0)		0 (0.0)	
훈련 기관	사설학원	34 (100.0)	0 (0.0)		91 (100.0)		0 (0.0)	
	직업훈련법인	11 (100.0)	0 (0.0)		26 (100.0)		0 (0.0)	
	공공직업훈련기관	87 (100.0)	0 (0.0)		56 (100.0)		0 (0.0)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의 훈련기관	534 (100.0)	0 (0.0)		131 (100.0)		0 (0.0)	
	대학 또는 전문대학 부설기관	43 (100.0)	0 (0.0)		37 (100.0)		0 (0.0)	
	협회나 단체, 연구소 등	92 (100.0)	0 (0.0)		67 (100.0)		0 (0.0)	
	복지관, 구청	23 (100.0)	0 (0.0)		37 (100.0)		0 (0.0)	
	통신 교육기관	52 (100.0)	0 (0.0)		8 (100.0)		0 (0.0)	
	여성인력개발센터	0	0		3 (100.0)		0 (0.0)	
	기타	18 (100.0)	0 (0.0)		15 (100.0)		0 (0.0)	

3) 빈곤층의 사회보험 가입 및 직업훈련 참여 여부별 특성

사회보장제도와 직업훈련의 연관성 및 실태 분석을 위하여 분석대상을 사회보장제도의 주요 정책대상인 빈곤층과 차상위 계층으로 구분하여 직업훈련 참여 여부를 살펴본다. 여기에서 빈곤층은 OECD에서 기준으로 삼고 있는 가구원수 가중치를 사용한 가구중위소득을 사용했으며, 차상위계층은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보건복지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계측)에서 공표하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였다²⁾.

먼저, 빈곤층의 사회보험 가입과 직업훈련 참여 여부에 대한 인적특성을 보면, 사회보험 가입자 중 직업훈련 경험 그룹은 성별로 남자, 연령별로 20대, 학력별로 대졸 이상, 근로시간 형태별로 전일제, 정규직 등의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직업훈련 비경험 그룹은 경험 그룹과 매우 유사하나 학력에서 고졸 비중이 매우 높은 차이를 보여준다(전체 집단 비교 결과와 유사).

다만, 빈곤층에서 사회보험 미가입자 중 직업훈련 참여 경험이 없는 그룹을 보면 비정규직 비중이 매우 높은 점이 특징적으로 나타나 빈곤층 중에서도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는 계층이 나타남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존 정규직 위주의 직업훈련에서 사각지대로 존재하는 비정규직으로 그 범위를 크게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빈곤층의 산업별, 직업별 직업훈련 참여 특성을 보면, 전체 분포와 유사하게 사회보험 가입자는 직업훈련 경험 여부와 관계없이 제조업과 서비스 종사자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사회보험 미가입자 중 직업훈련 경험이 없는 그룹은 업종별로는 수리업이 가장 높고, 직종에서도 기능종사자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 정작 취약계층의 필요한 산업과 직업의 직업훈련이 제대로 공급되고 있지 못함을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직업훈련 대상과 별도로 훈련수요는 존재하나 공급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취약계층 대상의 직업훈련 공급이 더욱 필요함을 보여준다. 빈곤층에서도 직업훈련 유형 및 참여 훈련기관은 재직자 훈련,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의 훈련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2) 차상위계층 분석 결과 빈곤층과 크게 상이하지 않아 본문에는 제시하지 않음

<표 6> 빈곤층 사회보험 가입여부에 따른 직업훈련 참여 여부(인적 속성별)

(단위: 명, %)

구분		사회보험 가입자				사회보험 미가입자			
		직업훈련 경험있음		직업훈련 경험없음		직업훈련 경험있음		직업훈련 경험없음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계		130	(12.5)	907	(87.5)	123	(2.2)	5,433	(97.8)
성 별	남자	82	(13.0)	550	(87.0)	67	(2.7)	2,461	(97.3)
	여자	48	(11.9)	357	(88.1)	56	(1.8)	2,972	(98.2)
연 령	20대미만	0		0		1	(0.9)	111	(99.1)
	20대	27	(17.3)	129	(82.7)	18	(2.3)	766	(97.7)
	30대	64	(14.8)	367	(85.2)	32	(3.8)	817	(96.2)
	40대	22	(11.6)	168	(88.4)	33	(4.2)	755	(95.8)
	50대	11	(9.3)	107	(90.7)	24	(3.0)	785	(97.0)
	60대이상	6	(4.2)	136	(95.8)	15	(0.7)	2,199	(99.3)
학 력	고졸이하	12	(5.5)	207	(94.5)	20	(0.7)	2,819	(99.3)
	고졸	43	(10.5)	365	(89.5)	64	(3.3)	1,898	(96.7)
	초대졸	20	(12.4)	141	(87.6)	17	(6.3)	253	(93.7)
	대졸이상	55	(22.1)	194	(77.9)	22	(4.5)	463	(95.5)
거주지역	광역시	73	(13.6)	463	(86.4)	66	(2.3)	2,780	(97.7)
	기타	57	(11.4)	444	(88.6)	57	(2.1)	2,653	(97.9)
혼인상태	미혼	43	(12.2)	310	(87.8)	36	(2.6)	1,360	(97.4)
	기혼	80	(13.7)	504	(86.3)	77	(2.5)	2,978	(97.5)
	기타	7	(7.0)	93	(93.0)	10	(0.9)	1,095	(99.1)
취업여부	취업자	130	(12.5)	907	(87.5)	89	(4.6)	1,835	(95.4)
	미취업자	0		0		34	(0.9)	3,598	(99.1)
구직활동 기간유무	없음	45	(12.4)	319	(87.6)	36	(6.0)	565	(94.0)
	있음	25	(9.4)	240	(90.6)	13	(5.0)	246	(95.0)
근로시간 형 태	시간제	4	(9.8)	37	(90.2)	7	(3.7)	184	(96.3)
	전일제	126	(12.7)	865	(87.3)	32	(4.0)	770	(96.0)
정 규 직 여 부	정규직	111	(13.7)	698	(86.3)	16	(4.6)	332	(95.4)
	비정규직	18	(8.5)	194	(91.5)	23	(3.7)	605	(96.3)
임금결정 방 식	연봉제	7	(10.8)	58	(89.2)	0	(0.0)	7	(100.0)
	월급	119	(13.0)	795	(87.0)	26	(4.3)	573	(95.7)
	기타	4	(6.9)	54	(93.1)	13	(3.4)	374	(96.6)
자 격 증 보유여부	있음	29	(35.8)	52	(64.2)	22	(20.6)	85	(79.4)
	없음	101	(10.6)	855	(89.4)	101	(1.9)	5,348	(98.1)

<표 7> 빈곤층 사회보험 가입여부에 따른 직업훈련 참여 여부(산업, 직업별)

(단위: 명, %)

구분	사회보험 가입자				사회보험 미가입자			
	직업훈련 경험있음		직업훈련 경험없음		직업훈련 경험있음		직업훈련 경험없음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계	130	(12.5)	907	(87.5)	123	(2.2)	5,433	(97.8)
업 종	농림어업	0 (0.0)	3 (100.0)	13 (4.1)	305 (95.9)			
	광업	0 (0.0)	3 (100.0)	0 (0.0)	1 (100.0)			
	제조업	32 (9.7)	299 (90.3)	4 (1.8)	218 (98.2)			
	전기수도	2 (50.0)	2 (50.0)	0 (0.0)	1 (100.0)			
	건설업	9 (11.7)	68 (88.3)	4 (1.9)	210 (98.1)			
	수리업	14 (12.0)	103 (88.0)	10 (3.1)	313 (96.9)			
	숙박음식	2 (8.7)	21 (91.3)	11 (4.4)	238 (95.6)			
	운수업	11 (18.0)	50 (82.0)	6 (9.7)	56 (90.3)			
	통신업	4 (22.2)	14 (77.8)	0 (0.0)	10 (100.0)			
	금융보험	1 (5.0)	19 (95.0)	11 (33.3)	22 (66.7)			
	부동산임대	0 (0.0)	13 (100.0)	4 (8.0)	46 (92.0)			
	사업서비스	14 (10.4)	120 (89.6)	5 (5.9)	80 (94.1)			
	공공행정	14 (26.4)	39 (73.6)	1 (3.3)	29 (96.7)			
	교육서비스	15 (19.7)	61 (80.3)	4 (4.7)	82 (95.3)			
	사회복지	7 (13.7)	44 (86.3)	3 (15.8)	16 (84.2)			
	오락공연	1 (8.3)	11 (91.7)	3 (6.0)	47 (94.0)			
	개인서비스	4 (9.8)	37 (90.2)	10 (5.8)	161 (94.2)			
직 종	고위임직원							
	전문가	0 (0.0)	3 (100.0)	0 (0.0)	28 (100.0)			
	기술공	20 (16.7)	100 (83.3)	6 (8.3)	66 (91.7)			
	사무종사자	24 (16.9)	118 (83.1)	10 (6.4)	147 (93.6)			
	서비스종사자	28 (14.4)	167 (85.6)	9 (9.0)	91 (91.0)			
	판매종사자	7 (19.4)	29 (80.6)	14 (4.8)	275 (95.2)			
	농어업종사자	7 (14.9)	40 (85.1)	18 (6.7)	251 (93.3)			
	기능종사자	0 (0.0)	4 (100.0)	13 (4.2)	297 (95.8)			
	조립종사자	16 (11.4)	124 (88.6)	4 (1.5)	260 (98.5)			
	단순노무	16 (10.2)	141 (89.8)	7 (5.8)	113 (94.2)			
	군인	11 (5.9)	177 (94.1)	8 (2.6)	305 (97.4)			
	무직	1 (25.0)	3 (75.0)	0 (0.0)	1 (100.0)			

<표 8> 빈곤층 사회보험 가입 여부에 따른 직업훈련 참여 여부(직업훈련별)

(단위: 명, %)

구분	사회보험 가입자				사회보험 미가입자			
	직업훈련 경험있음		직업훈련 경험없음		직업훈련 경험있음		직업훈련 경험없음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계	130	(12.5)	907	(87.5)	123	(2.2)	5,433	(97.8)
정부 지원 훈련	기능사 양성훈련 또는 정부위탁훈련	3 (100.0)	0 (0.0)		10 (100.0)		0 (0.0)	
	실업자 재취직 훈련	2 (100.0)	0 (0.0)		7 (100.0)		0 (0.0)	
	고용촉진훈련	0	0		10 (100.0)		0 (0.0)	
	재직자 훈련	16 (100.0)	0 (0.0)		10 (100.0)		0 (0.0)	
	취업훈련(신규학교졸업자)	3 (100.0)	0 (0.0)		2 (100.0)		0 (0.0)	
	근로자수강지원금	0	0		0		0	
	기타 실업자훈련	1 (100.0)	0 (0.0)		1 (100.0)		0 (0.0)	
	잘 모르겠음	0	0		2 (100.0)		0 (0.0)	
훈련 기관	사설학원	12 (100.0)	0 (0.0)		18 (100.0)		0 (0.0)	
	직업훈련법인	5 (100.0)	0 (0.0)		6 (100.0)		0 (0.0)	
	공공직업훈련기관	14 (100.0)	0 (0.0)		18 (100.0)		0 (0.0)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의 훈련기관	69 (100.0)	0 (0.0)		35 (100.0)		0 (0.0)	
	대학 또는 전문대학 부설기관	6 (100.0)	0 (0.0)		4 (100.0)		0 (0.0)	
	협회나 단체, 연구소 등	12 (100.0)	0 (0.0)		19 (100.0)		0 (0.0)	
	복지관, 구청	2 (100.0)	0 (0.0)		13 (100.0)		0 (0.0)	
	통신 교육기관	4 (100.0)	0 (0.0)		3 (100.0)		0 (0.0)	
	여성인력개발센터	0	0		0		0	
	기타	6 (100.0)	0 (0.0)		7 (100.0)		0 (0.0)	

4) 빈곤층의 사회보험 가입 및 직업훈련 참여 여부별 특성

각 사회보장제도 가입자들의 직업훈련 참여에 미치는 영향 요소들을 대상으로 그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대부분의 사회보험에서 연령, 학력, 지역, 구직활동, 결혼유무(기혼), 임금결정(월급제), 자격 등이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업종 및 직종 변수에서는 대부분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표 9> 사회보험 가입자의 직업훈련 참여 결정요인 I (국민연금, 건강보험)

구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계수	표준오차	p-value	계수	표준오차	p-value
상수항		-2.630	0.974	0.007	-2.345	0.956	0.014
성별(남자)	여자	-0.155	0.101	0.123	-0.120	0.094	0.204
연령(20대미만)	20대	1.116	0.297	0.000	0.863	0.251	0.001
	30대	0.860	0.262	0.001	0.568	0.213	0.008
	40대	0.811	0.257	0.002	0.630	0.209	0.003
	50대	0.782	0.260	0.003	0.594	0.212	0.005
학력(고졸이하)	고졸	0.304	0.179	0.090	0.311	0.173	0.073
	대졸	0.599	0.205	0.004	0.614	0.198	0.002
	대졸이상	0.739	0.200	0.000	0.838	0.192	<.0001
지역(광역시)	기타	0.273	0.083	0.001	0.211	0.079	0.007
혼인여부(미혼)	기혼	0.481	0.116	<.0001	0.451	0.111	<.0001
	기타	-0.047	0.293	0.871	0.035	0.267	0.896
구직활동기간여부(있음)	없음	-0.272	0.140	0.052	-0.338	0.139	0.015
근로시간형태(시간제)	전일제	0.063	0.306	0.837	0.230	0.308	0.455
정규직여부(정규직)	비정규직	-0.123	0.138	0.375	-0.290	0.134	0.031
임금결정방식(연봉제)	월급제	-0.351	0.114	0.002	-0.312	0.111	0.005
	기타	-0.331	0.286	0.248	-0.206	0.276	0.456
자격증(있음)	없음	-1.248	0.178	<.0001	-1.387	0.165	<.0001
업종(농림어업)	광업	-10.737	310.200	0.972	-10.633	274.900	0.969
	제조업	0.267	0.802	0.739	0.352	0.803	0.661
	전기수도	1.092	0.863	0.206	1.108	0.864	0.200
	건설업	-0.232	0.821	0.777	-0.219	0.823	0.790
	수리업	0.055	0.812	0.946	0.105	0.813	0.897
	숙박음식	0.044	0.871	0.959	-0.064	0.880	0.942
	운수업	0.696	0.812	0.391	0.690	0.813	0.397
	통신업	0.585	0.836	0.484	0.741	0.834	0.374
	금융보험	0.990	0.811	0.222	1.040	0.812	0.201
	부동산임대	0.070	0.914	0.939	0.092	0.915	0.920
	사업서비스	0.200	0.807	0.805	0.276	0.809	0.733
	공공행정	0.871	0.824	0.290	1.092	0.813	0.179
	교육서비스	0.046	0.818	0.955	0.665	0.811	0.412
	사회복지	0.616	0.815	0.450	0.658	0.815	0.420
	오락공연	-0.396	0.929	0.670	-0.215	0.912	0.814
	개인서비스	0.101	0.832	0.904	0.043	0.835	0.959
직종(전문가)	기술공	0.024	0.327	0.942	-0.043	0.291	0.870
	사무 종사자	0.215	0.313	0.493	0.032	0.281	0.909
	서비스 종사자	-0.018	0.316	0.955	-0.065	0.282	0.817
	판매 종사자	0.309	0.373	0.408	0.210	0.332	0.527
	농어업 종사자	0.524	0.361	0.146	0.449	0.332	0.177
	기능 종사자	0.204	0.922	0.825	0.208	0.932	0.824
	조립 종사자	0.171	0.327	0.602	0.095	0.296	0.748
	단순노무	0.035	0.326	0.915	-0.104	0.296	0.725
	군인	0.041	0.360	0.910	-0.095	0.326	0.867
	무직	-0.803	1.191	0.501	-1.142	0.736	0.121
-2Log L		3954.732			4387.736		
N		4917			5300		

<표 10> 사회보험 가입자의 직업훈련 참여 결정요인 II(고용보험, 산재보험)

구분		고용보험			산재보험		
		계수	표준오차	p-value	계수	표준오차	p-value
상수항		-2.157	0.895	0.016	-1.550	0.880	0.078
성별(남자)	여자	-0.160	0.097	0.100	-0.143	0.098	0.143
	20대	0.938	0.267	0.001	0.600	0.252	0.017
	30대	0.626	0.231	0.007	0.330	0.212	0.121
	40대	0.614	0.226	0.007	0.333	0.207	0.107
	50대	0.718	0.228	0.002	0.441	0.209	0.035
학력(고졸이하)	고졸	0.371	0.174	0.032	0.429	0.172	0.013
	대졸	0.684	0.200	0.001	0.734	0.200	0.000
	대졸이상	0.838	0.194	<.0001	0.902	0.193	<.0001
지역(광역시)	기타	0.249	0.081	0.002	0.274	0.081	0.001
혼인여부(미혼)	기혼	0.497	0.115	<.0001	0.449	0.115	<.0001
	기타	0.146	0.260	0.574	0.223	0.250	0.371
구직활동기간여부(있음)	없음	-0.329	0.139	0.018	-0.405	0.142	0.004
근로시간(시간제)	전일제	0.120	0.304	0.693	-0.164	0.293	0.576
정규직여부(정규직)	비정규직	-0.186	0.133	0.162	-0.248	0.134	0.064
임금결정방식(연봉제)	월급제	-0.367	0.111	0.001	-0.373	0.112	0.001
	기타	0.032	0.264	0.904	-0.300	0.268	0.264
자격증(있음)	없음	-1.328	0.170	<.0001	-1.403	0.171	<.0001
업종(농림어업)	광업	-11.089	309.500	0.971	-10.929	275.200	0.968
	제조업	-0.053	0.717	0.941	0.004	0.710	0.996
	전기수도	0.812	0.783	0.299	0.783	0.778	0.315
	건설업	-0.491	0.734	0.504	-0.405	0.725	0.576
	수리업	-0.204	0.728	0.779	-0.149	0.721	0.836
	숙박음식	-0.615	0.802	0.443	-0.409	0.790	0.604
	운수업	0.284	0.727	0.696	0.353	0.720	0.624
	통신업	0.346	0.753	0.646	0.420	0.747	0.574
	금융보험	0.670	0.728	0.357	0.694	0.721	0.336
	부동산임대	-0.216	0.842	0.798	-0.366	0.854	0.669
	사업서비스	-0.067	0.723	0.926	-0.040	0.715	0.956
	공공행정	0.241	0.735	0.743	0.442	0.725	0.543
	교육서비스	-0.062	0.729	0.932	0.114	0.722	0.875
	사회복지	0.343	0.731	0.639	0.431	0.724	0.551
	오락공연	-0.310	0.823	0.707	-0.316	0.817	0.699
	개인서비스	-0.467	0.760	0.539	-0.496	0.756	0.511
	기술공	0.007	0.308	0.983	-0.048	0.298	0.871
직종(전문가)	사무 종사자	0.213	0.297	0.473	0.136	0.286	0.636
	서비스 종사	0.016	0.299	0.956	0.010	0.288	0.972
	판매 종사자	0.338	0.352	0.338	0.248	0.343	0.470
	농어업 종사	0.597	0.346	0.084	0.604	0.338	0.074
	기능 종사자	0.703	0.841	0.403	0.646	0.835	0.439
	조립 종사자	0.228	0.309	0.461	0.202	0.299	0.499
	단 순 노 무	0.006	0.311	0.986	-0.088	0.302	0.770
	군 인	0.040	0.339	0.907	0.038	0.326	0.908
	무 직	-0.918	1.162	0.429	-0.299	0.961	0.756
-2Log L		4161.300			4167.252		
N		5149			5075		

5. 결론

사회보장제도와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정작 사회보장제도와 직업능력개발과의 관계, 영향 등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공공부조 정책의 세계적 흐름은 가능한 한 공공부조 대상 계층을 노동시장에 진입시킬 수 있도록 취업촉진을 돕는 방향으로 변화해 왔다. 소득보장에서 근로유인 제고로 그 방향이 바뀐 것은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가 큰 역할을 했으며, 실업 및 장기수급자의 증가로 인한 공공부조 수급자의 증가, 복지의존성 문제 대두, 복지국가 위기론 등에 기인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직업훈련 참여 여부(수혜여부)를 핵심 효과 분석의 지표로 선정하고, 직업훈련 참여로 인한 개인의 인적·사회적·경제적 변화를 그 성과로 보았다.

사회보험 가입자의 직업훈련 참여 현황 분석 결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분석대상 사회보험의 가입자 및 미가입자 모두 시간 경과에 따라 직업훈련 참여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직업훈련 참여 기회 제공이 확대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특히, 미가입자들의 직업훈련 참여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직업훈련의 역할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회보험 미가입자 중 직업훈련 참여 경험이 없는 계층은 성별로 여성, 연령별로 60대 이상, 학력별로 고졸, 미취업자 비중이 높게 나타나 사회보험 수혜와 직업훈련 참여 기회 확대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사회보험 가입자 중 직업훈련을 경험한 그룹 모두 재직자훈련과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의 훈련기관을 활용한 사례가 가장 높아 사회보험과 직업훈련과의 연관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빈곤층에서 사회보험 미가입자 중 직업훈련 참여 경험이 없는 그룹을 보면 비정규직 비중이 매우 높은 점이 특징적으로 나타나 빈곤층 중에서도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는 계층이 있음을 볼 수 있고, 사회보험 미가입자 중 직업훈련 경험이 없는 그룹에서 수리업, 기능종사자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 공급이 필요함을 볼 수 있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회보장제도의 직업능력개발 연계 실태 및 효과 분석은 각종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제도의 관련 원자료 연계를 통해 개개인의 사회복지 전반에 관한 수혜 및 참여 현황과 그 영향 요인을 분석하는 데 있다. 그러나 현재 각각의 사회보장제도 원자료는 징수·수급 등 행정관리용으로 대부분 활용되고 있고,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외부 유출, 활용이 어려워 자료 연계를 통한 종합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각종 제도 개선 및 효과 증진을 위해서 원자료 연계 분석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는 후속연구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구인회 (200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로유인효과 개선 방안: 자활사업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제21권1호, 한국사회보장학회
- 김영순 외 (2003), 저소득층 근로유인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철희 (2004), 「빈곤층의 직업훈련과 실업급여 효과 분석」, 사회보장연구, 제20권1호, 한국사회보장학회
- 김혜원 외 (2007), 사회안전망의 경제적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 박찬용 외 (2008), 「사회보험 사회복지제도의 근로유인 효과분석」, 노동부
- 박찬용 외 (2000),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소득보장체계 개편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서상선 (2002), 한국직업훈련제도의 발자취, 대한상공회의소
- 유경준 외 (2007), 2007년도 재정사업 심층평가 보고서: 실업자직업훈련사업,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 이병희 (2000), 「실업자재취직훈련의 재취업 성과에 관한 준실험적 평가」, 노동경제논집, 제23권2호, 한국노동경제학회
- 이상은 (200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노동공급 효과, 한국사회복지학, 제56권2호, 한국사회복지학회
- 정택수 (2008), 직업능력개발제도의 변천과 과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투고일자 : 2010. 2. 9

개제확정 : 2010. 3. 22